

제 142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의자: Carmen Schmidt (카르멘 슈미트-오스나브뤼크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

주제: 일본의 민간종교와 근대화 프로그램의 공적과 함정

제 142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카르멘 슈미트 선생님은 일본의 민간종교, 즉 Civil Religion의 개념과 일본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이 Civil Religion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강연하셨다.

Civil Religion이라는 개념은 장 자끄 루소에 의해 1762년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근대사회의 도덕적이고 정신적, 또는 종교적인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사회에 따라 이 개념은 국가주의 (Nationalism),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등의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루소가 주창한 Civil Religion 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루소는 국가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감정적인 결속력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가 주창한 Civil Religion이라는 개념은 좀 더 시민사회에 근간을 둔 개념으로 좀 더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다.

카르멘 슈미트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집중한 분야는 일본의 Civil Religion이라고 하셨다. 사회의 좀 더 근본적인 문화이며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Civil Religion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카르멘 슈미트 선생님은 일본의 Civil Religion과 근대 일본 국가의 건설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일본의 근대화는 두가지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양식과 진보적인 양식이 그 예이다. 진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근대화는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과 시민의 권익을 주장하는 움직임이었고 권위주의 정부는 물러나야 하며 국회가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는 천황이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메이지 헌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1, 3, 4, 11조 등에서 천황이 국가의 주체이고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며, 군대나 해군의 최고사령임을 명시하고 있어 천황이 국가의 가장 최상위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카르멘 슈미트 선생님은 이 시기의 저명한 학자에 대해 소개하셨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학자 후쿠자와 유키치 (Fukuzawa Yukichi)는 그의 저서에서 기회의 평등과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선생님이 소개하신 메이지 시대의 国体の本義 (1937)라는 저서에서는 일본은 하나의 가족 국가이며 천황의 일가를 가족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선생님은 이러한 의식이 근대 일본의 근간이 된 이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산업화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일본의 산업화는 1880년대 이후 서구로부터 도입된 근대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받은 재벌 (Zaibatsu)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일본의 거대

기업 미쓰비시를 예로 들면서 이 시기 조선, 무역, 광업, 금융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산업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들었다.

선생님이 지적한 이 시기의 문제점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예로 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정부 자체에서도 여성을 홈 메이커 (home maker) 정도로 치부했는데, 후쿠자와 유키지는 이 점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그는 문명화된 사회의 경우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고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초기의 여성운동은 성의 평등을 주장했는데 여성의 정치참여가 금지되었던 이 시대에 여성운동은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텍스타일 산업 분야의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여성도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운동의 규모가 커졌고 한다.

선생님은 이번 강연을 마치면서 일본의 근대화의 기원을 정리하셨는데 메이지 유신 당시 메이지 리더들의 서양의 영향을 받아 서구화, 근대화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자리잡고 있던 전통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정치 참여에 제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요약하셨다.

Q. Robert Bellah가 제시한 Civil Religion이라는 개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Modern Society라는 것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 컨셉은 근대화 사회에 연결된 것이지만 새로운 근대사회의 적법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Modern Society에도 연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Q. 일본과 서양에서 말하는 Civil Religion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일본의 근대화에는 Hierarchy(계급)가 있습니다.

Q. Civil Religion과 민주종교라는 것이 번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차이가 있습니까?

- 민주라는 것은 더 정치에 관련된 말 같은데요, Democratic Society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Civil Religion은 시민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Q.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 Religion of people(시민의 종교)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전에 이것은 Hierarchy(계급)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사회 내의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Religion of people(시민의 종교)은 그들이 만든 개념과는 또 다릅니다. 조상, 지역만을 포함하는 것이라 메이지 시대의 리더들이 개념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Q. State Shinto와 Civil Religion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충성, Hierarchy(계급-신, 교황이라는 개념이 있음)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Civil Religion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into라는 것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양의 개념을 모방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Civil Religion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국가주의, 또는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 Civil Religion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잡으려고 했지만 일본과는 다른 양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라는 개념 속에서 특히 일본 자체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잡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이것은 서양과는 구별되는 유교적인 Hierarchy가 내재된 개념으로 본다면 서양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 Robert Bellah는 어떻게 일본이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근대화하였는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요. 어떻게 개념적으로 Civil Religion과 State Shinto를 일본의 경제화와 근대화라는 것과 연결시켰나요?

- 일본의 근대화와 경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 특히 Zibatsu(재벌)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산업화를 이룩했기 때문이고요. 일본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의 연장입니다. 그 속에는 계급적 관계 (Hierarchical

relation)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지역의 Shinto 신사에 갔고 회사에 충성을 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는 가족-기업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신입 직원이 들어올 경우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져 지역의 신사에 충성하는 관계, 나아가 기업에 충성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강한 신뢰와 충성이 나아가 일본의 산업화에 기여했고 이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요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Civil Religion의 중심적인 개념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예를 들자면, 조상에 대한 숭배, 천황제, 가족국가- 우리는 가족이고 천황은 우리의 아버지나 다름없다는 계급의식, 남성과 여성, 유교 사상 속에 내재된 가족이라는 개념, 지역, 지역 속의 계급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